

재미한인 노인들을 위한 너싱홈의 물리적 주거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 재미한인 노인 거주자 관점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Regarding Physical Environments of Nursing Homes for Frail Korean American Elders - Focused on Korean American Elderly Residents' Views -

이은희*
Lee, Eun-H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overall physical environment's features of nursing homes for Korean American elders in the United States. This investigation was conducted in Korean American nursing homes on the East Coast and in the Midwest with multiple qualitative data collection methods, such as interviews, observations, document review, and field not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Although almost all respondents were unable to speak and understand English at all, most written materials in nursing homes were in only English; 2) The nursing homes were placed near or within the Korean communities; thus, it contributed to close ties with religious Korean American groups and other groups in the ethnic communities; 3) Whether the facility's physical features looked like those of a hospital or a home, many residents did not consider a nursing homes as a real home; 4) A fenced garden in the nursing home in the Midwest was the residents' favorite public space; 5) Due to being forced to room with residents who had dementia and were bedridden, they were more likely to have conflicts with their roommates and feel uncomfortable living in their room; and 6) The facilities seemed to be designed without consideration to protect residents' privacy.

Keywords : Nursing Home, Korean American Elders, Ethnic Minority Elders, Physical Environments

주요어 : 너싱홈, 재미한인 노인, 소수민족 노인, 물리적 환경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미국 내 소수민족 노인인구의 인구통계학적 변화

1996년 가족 재결합을 우선으로 하는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zation Act)이 개정됨에 따라 미국 내 소수민족 노인과 노인 이민자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영어를 잘 하지 못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미국 노인의 수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총 노인 인구 중 소수민족 노인인구는 2000년에는 16.3%(570만명) 증가했으며 2010년에 20.1%(800만명), 2020년에 23.6%(1,290만명), 2050년에는 약 40%(3,470만명)까지 증가 할 것으로 예상했다(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of Aging, 2009). 반면, 비 라틴아메리카계 백인노인 인구가 전체 노인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에는 80.4%에서 2050년에는 60%로 감소 할 것으로 예상했다(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of Aging, 2009). 65세 이상 비 라틴아메리카계 백인노인과 소수민족 노인인구의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Percentage of Non-Hispanic White American & Minority Populations 65+ (Actual & Projected)

	2000	2010	2020	2050
Non-Hispanic white American	83.7	79.9	76.4	60
Minority	16.3	20.1	23.6	40

Source: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of Aging (2009). A Profile of Older Americans: 2009. 5.

*정희원(주저자, 교신저자),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강사, PhD.

이 논문은 2010년 한국주거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이 논문은 이은희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토대로 수정·보완한 연구임.

미국에서 라틴아메리카계 미국노인과 아시아계 미국노인은 가장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민족 집단이다. 통계에 의하면 2008년에서 2030년까지 65세 이상 미국 노인인구 예상 증가율은 비 라틴아메리카계 백인노인의 경우 64%

인데 반해, 소수민족 노인인구 증가율은 172%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수민족 노인인구 예상 증가율을 세분해서 살펴보면, 라틴아메리카인 224%, 아시아인 199%, 인디언·에스키모·알류트인 153%, 그리고 흑인 120% 순으로 나타났다(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of Aging, 2009). 이와같이 미국 내 소수민족 노인 인구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미국에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에 대한 장기케어가 더욱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2) 재미한인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한국계 미국인은 최근 미국에서 가장 급속히 증가하는 아시아계 민족 집단 중 하나로서 현재 아시아계 미국인구 중 중국계, 필리핀계, 인도계, 베트남계 미국인 다음으로 다섯번째로 큰 집단이다(U.S. Department of Commerce, 2010). 한국계 미국인 인구수는 1970년에 69,510명(U.S. Census Bureau, 1973)에서 2000년에는 1,076,872명으로 증가했으며(U.S. Census Bureau, 2000) 그 증가율은 1,500배에 이르렀다.

1996년 미국 이민법 개정 이후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노인 인구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 중 65세 이상은 1980년에는 2.6%였으나, 1990년에는 4.4%로 증가하였고(Yoo & Sung, 1997) 현재 6%에 이른다(Jang et al., 2008). 짧은 미국이민역사로 현재 재미한인 노인인구 수가 다른 민족노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지만, 젊은 시절 미국에 이민 와서 노령기에 접어드는 한인들과 새로 개정된 이민법 아래 자녀들의 초청으로 이민 오는 한인 노인들로 인해 이들의 수가 계속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 미국의 모든 노인 이민자의 30%가 한국, 필리핀, 중국, 베트남 출신으로 나타났다(Tanjasiri, Wallace, & Shibata, 1995). 재미한인 노인인구가 미국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가장 되지 않은 집단 중 하나로 남아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노인의 특성은 대부분(95%)이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며 자녀들과 재결합을 하기 위해 자녀들의 초청으로 55세 이상 노령기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Kim, 1997). 또한 이들 대부분은 미국 문화나 영어에 익숙하지 않다. 미국통계국(U.S. Census Bureau, 1993)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노인의 80%가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으며 50%는 언어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대부분 한인노인들은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미국에서 근무경력이 짧거나 없기 때문에 사회보장수혜금(Social Security benefit)이나 퇴직연금(retirement pension)을 받지 못한다(Yoo & Sung, 1997). 뉴욕시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미국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인노인 중 4.2%만이 사보험(private insurance)을 가지고 있었으며 빈곤층을 위한 보조를 받는 경우가 다른 아시아계 노인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Mui & Shibusawa, 2008).

3) 미국 너싱홈

오늘날 미국 너싱홈의 근원은 19세기 초 구빈원(almshouse), 회복기환자 요양소(convalescent homes), 양로원(old age home), 그리고 병원에서 비롯되었다(Clark, 2006). 그 후 1965년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 제정은 너싱홈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노인보호주택(assisted living facility)과 가정건강보호서비스(home health care services)와 같이 노인들의 장기케어를 위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반면 ‘죽음의 집(houses of death)’, ‘인간쓰레기장(human junkyards)’, ‘죽음을 앞둔 사람을 위한 창고(warehouses for the dying)’와 같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너싱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너싱홈 및 너싱홈 거주자의 수를 줄어든게 만들었다(Johnson & Grant, 1985, p. 3). 통계에 의하면 너싱홈 거주자 수는 1999년 160만명에서 2004년 150만명으로 줄었다(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2002). 그리고 너싱홈 수는 1985년 19,100개소에서 1997년 17,000개소(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2002), 2004년 16,100개소로 줄어들었다(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2009).

이와같이 너싱홈 수와 거주자 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 중풍 등 만성질환과 기능장애로 인해 더 이상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집에서 간호를 받기 힘들지만 다른 선택에 여지가 없는 고령자들에게 있어서 너싱홈은 여전히 그들의 장기케어를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너싱홈 거주자의 특성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너싱홈 거주자의 88.3%가 65세 이상이고 45.2%가 85세 이상 고령자이며 이들의 평균나이는 80세 이상으로 나타났다(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2009). 거의 대부분의 너싱홈 거주자(97.3%)는 일상생활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에서 2개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며 절반정도(51.1%)가 5개 모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2009).

아시아노인들은 집에서 자식들의 돌봄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싱홈과 같은 케어시설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인의 편견과 달리, 재미한인 노인의 너싱홈 이용에 관한 선조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정도(45%)가 장애를 갖게 되거나 병약해진다면 너싱홈에 입소 할 것이라고 답했다(Jang et al., 2008).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응답자의 31%가 자신들의 신체적 건강이 악화된다면 너싱홈이 자신들의 최상의 거주지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Yu et al., 1993).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노인 대부분은 사보험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장기케어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폭이 매우 좁다. 반면 너싱홈 서비스 이용비용은 일정 자격조건을 충족한다면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로 거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케어가 필요한 재미한인 노인에게

있어서 너싱홈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기케어시설이라 할 수 있다.

최근 20년 동안 노인들을 위한 문화적으로 적절한 환경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나(Day & Cohen, 2000), 일반적인 미국 너싱홈환경은 여전히 특정한 민족이 필요로 하는 것이나 선호하는 것에 맞추어 디자인되거나 계획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미국에 존재하는 너싱홈 대부분은 사실상 재미한인 노인과 같이 미국과 다른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가진 이민 노인들에게는 적절한 장기케어시설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미한인 노인을 위한 너싱홈은 이들 노인이나 그 가족에게 있어서 그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재미한인 노인 대다수(89.4%)가 한인을 위한 너싱홈과 같이 민족을 중심으로 한 너싱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Jang et al., 2008).

미국, 호주와 같이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에서는 최근 민족별로 그룹화한 너싱홈은 소수민족 노인들에게 문화적, 언어적으로 적절한 너싱홈 환경이나 케어 제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민족별로 그룹화한 너싱홈은 소수민족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소수민족 지역공동체(ethnic community)를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민족 노인을 위한 너싱홈 환경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극히 적다.

재미한인 노인을 그룹화한 너싱홈도 한인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한인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 내 재미한인을 위한 너싱홈의 물리적 주거환경은 어떠한지 또한 재미한인 거주자들이 이러한 주거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재미한인 노인을 위한 너싱홈의 물리적 주거환경을 파악하고 이러한 물리적 주거환경에 대한 재미한인 노인거주자의 생각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재미한인 노인을 위한 너싱홈 환경을 디자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얻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조사는 너싱홈의 물리적 주거공간 중에서 거주자 이용공간으로 제한했으며 너싱홈의 물리적 주거공간을 다음과 같이 분류해 조사하였다.

- 1) 정원, 뜰 등과 같이 거주자를 위한 옥외공간은 건물 외부공간으로 분류하였다.
- 2) 건물 실내공간은 공공공간(public space)¹⁾과 준사적 및

사적공간(semiprivate & private space)²⁾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현장사례연구로서 다양한 질적연구방법(심층면접, 관찰, 문서검토, 현장기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다중자료수집기법(Triangulation)을 사용하였다.

1. 장소선정

본 연구를 위해 재미한인 노인이 많이 거주하고 이들을 위한 너싱홈이 있는 미국 중부지역과 동부지역을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너싱홈 선정을 위해 각 지역의 한인노인센터(Korean Senior Center)로 부터 재미한인 노인을 위한 너싱홈 목록을 얻었다. 각 너싱홈 관리 책임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조사과정 등을 설명한 후 연구조사허가를 받은 너싱홈 중 두 곳을 최종 선택하였다.

2. 연구대상자 선정

총 22명의 재미한인 거주자(남성 거주자: 4명, 여성 거주자: 18명)가 심층면접에 참여하였다. 거주자와의 면접 외에 시설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물리적 주거환경에 대한 추가정보를 얻기 위해 각 시설별로 한명씩 총 2명의 너싱홈 직원(한국부 관리책임자: 1명, 코디네이터: 1명)이 본 면접에 참여하였다. 주 연구대상자인 재미한인 너싱홈 거주자는 목적표본추출(purposive sampling)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의 면접에 참여한 너싱홈 거주자는 55세 이상 재미한인 노인으로서 질문을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중에서 너싱홈 환경에 대한 느낌, 경험, 생각을 나눌 의사를 가진 자로 한하였다. 치매 환자와 알츠하이머 환자는 연구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본 면접에서 제외되었다. 연구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각 너싱홈의 관리책임자로부터 본 면접에 참여할 수 있는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인 거주자 명단을 받았으며 성별, 이동성, 거주하는 방의 유형(1인실, 2인실, 3인실 이상) 등에 근거하여 최종 22명의 재미한인 노인을 선정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은 미국 동부지역에 위치한 A 너싱홈은 2008년 3월에, 미국 중부 지역에 위치한 B 너싱홈은 2006년 1월에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을 위해 반구조화된 면접용 질문지를 사용한 면접을 실시하였고 모든 면접은 연구자가 수행하였다. 면접시간은 1인당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면접을 하기 전, 조사자는 모든 참가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조사과정 및 참가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자발적으로 본 연구 참가 동의를

1) 식당, 오락실, 도서관, 세탁실 등과 같이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공공공간으로 분류하였다.

2) 거주자 방, 화장실, 목욕실 등과 같이 사적 실내공간은 준사적 및 사적공간으로 분류한다. 준사적공간은 2인 이상 사용하는 거주자 방이나 화장실, 목욕실이다.

에 서명을 한 후 참가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면접이 이루어졌다. 각각의 면접내용은 본인 동의를 얻어 녹음되었으며 면접도중 중요한 내용은 함께 기록되었고 면접이 끝난 직후 연구자의 느낌을 기록하였다.

면접과 함께 너싱홈 거주자들과 환경에 대한 관찰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두 너싱홈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너싱홈에서 제공하는 너싱홈 홍보 책자, 거주자를 위한 안내서, 거주자들의 권리가 쓰인 문서 등 보충자료도 함께 검토 되었다.

수집된 자료분석은 항시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을 사용해 이루어졌다. 녹취한 테이프나 파일은 결과분석을 위해 전사되었다.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전사된 모든 녹취록과 더불어 현장기록, 문서 등 수집된 자료를 읽었다. 행간분석방법을 사용해 개방코딩을 수행하였다. 여러번 숙독하면서 나타난 개념들은 하나의 범주(예: 교육정도, 나이, 한인 거주자의 수, 정원, 방 배정, 건물 외관)로 묶었다. 이 범주들은 다시 한인 너싱홈 거주자의 일반적 특성, 너싱홈의 일반적인 특성, 건물 외부공간, 공공공간, 준사적 및 사적공간으로 묶었고 공공공간과 준사적 및 사적공간은 다시 건물 실내공간으로 묶었다. 이들 범주들안에 자료내용들을 서로 비교분석 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재미한인 너싱홈 거주자의 일반적 특성

재미한인 노인 너싱홈 거주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은 18%, 여성은 82%로 여성이 다수를 이루었다. 연령분포는 58세에서 93세였으며 평균연령은 82세로 고령자들이었다. 학력은 응답자의 절반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였다. 응답자 대부분은 사별했으며 기독교인으로 나타났다.

모든 거주자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대부분이 55세 이상 노령기에 자녀의 초청으로 미국으로 이민 왔다. 미국에 거주한 기간분포는 3년에서 37년이었으며 평균기간은 22년이였다. 미국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재미한인 너싱홈 거주자들은 한국생활 방식을 유지하기를 원했으며 미국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응답자 대부분(15명)은 영어를 전혀 말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너싱홈 거주기간은 5일에서 4년까지 분포했으며 평균 거주기간은 약 2년이였다. 모든 응답자들은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와 같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

모든 응답자는 자녀가 있었으며 너싱홈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응답자의 과반수(14명)는 자녀로부터 독립해 나와 정부 보조 노인 아파트에서 혼자 혹은 배우자와 같이 살다가 건강 악화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힘들어지자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게 싫어서 너싱홈으로 옮겨왔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자녀와 가까운 지역에서 살기를 원했고 멀리 떨어진 타주로 거주하는 것을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American Residents (N=22)

Variables		N	%
Gender	Male	4	18
	Female	18	82
Age	55 to 64	1	4.5
	65 to 74	2	9.1
	75 to 84	5	22.7
	85 and older	14	63.7
	M(SD)		82.7
Education level	No school	6	27.3
	Elementary school	5	22.7
	Middle school	2	9.1
	High school	3	13.6
	College and higher	6	27.3
Religion	No religion	2	9.1
	Protestant	18	81.8
	Catholic	2	9.1
	Buddhist	0	0
	Others	0	0
Marital status	Never married	0	0
	Married	5	22.7
	Widowed	16	72.8
	Separated/divorced	1	4.5
Previous living arrangement	Living alone	12	54.5
	Living with spouse only	1	4.5
	Living with children	9	41
	Living with relatives	0	0
	Others	0	0
Mobility	Walker	15	68.2
	Wheelchair user	7	31.8
English proficiency	Fair or well	4	18.2
	A little	3	13.6
	Not at all	15	68.2
Previous residence	Government-subsidized apartment	13	59
	Child's house	9	41
	One's own house	0	0
	Others	0	0

매우 꺼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응답자는 자신들이 거주했던 지역에 한인들을 위한 너싱홈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인들을 위한 너싱홈에 입소하기 위해 자녀들과 아주 멀리 떨어진 타주에서 옮겨왔다고 답했다.

2. 조사대상 너싱홈의 일반적 특성

미국 동부지역에 위치한 A 너싱홈은 그 주(州)에서 가장 큰 병원에 소속된 비영리 너싱홈으로서 2003년에 재미한인 노인들을 위한 너싱홈 프로그램을 시작 하였으며 그 주(州)에서 최초로 설립된 한국 너싱홈이다. 주 건물과 떨어진 3층 건물은 재미한인 노인들만을 위한 것으로 조사 당시 100여명의 한인 노인들이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미국 중부지역에 위치한 B 너싱홈은 30년 전에 문을 연 영리 너싱홈이다. 2층 건물로 거주자들은 1층에 여러 민족이 섞여 살고 있었으나 한인 노인들은 한국관이라 칭하는 윙(wing)에 모여 살고 있었다. 조사당시 총 144명의 거주자 중 한인 거주자가 66명으로 다수를 이루었다.

두 너싱홈 모두 재미한인이 많이 사는 지역에 위치했다. A 너싱홈은 그 주(州)의 한인 지역공동체 가까이에 위치했고 B 너싱홈은 그 주(州)의 한인 지역공동체 내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 지역공동체 내의 여러 한인봉사단체, 종교단체, 그 외 여러 한인단체와 연계되어 있었으며 이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위문행사나 말벗 등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너싱홈을 정기적으로 방문한다고 답했다. 한인 지역공동체의 봉사자들의 방문은 한인 거주자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심리적,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번은 교회에서 [여기] 봉사하러 왔어요. 교회에서 뭐 해왔나 하면 자장면을 해왔어. 자장면 해 와서 국수는 따로 [여기] 와 가지고 삶고 했는데 그걸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 올해도 그 교회에서 자장면 안 해오냐고 기다린다고. 자장면 준다니까 다 좋아 하지 뭐.” (거주자 6, A 너싱홈)

“여기[너싱홈]는 매일 예배 봐. 월요일에만 안 보고. 화수목금토일. 그리고 토요일은 성경공부가 있거든. 목사님들도 다 다른 목사님이 오셔. 다 봉사하러 오셔. 퇴직한 목사님도 계시고 현직 목사님도 계시는데... 오셔가지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가시고.” (거주자 4, A 너싱홈)

“각 [한국] 교회에서도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오셔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해주시고 떡도 해서 드리고 예배도 와서 인도해 주시고 그래요...” (코디네이터, A 너싱홈)

“여기[너싱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예배드리는 걸 좋아해요.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교회목사님이 오셔서 봉사해 주세요...” (한국부 관리책임자, B 너싱홈)

3. 조사대상 너싱홈의 물리적 주거환경 및 재미한인 거주자의 견해

1) 건물 외부공간

A 너싱홈은 여러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미한인이 사용하는 3층 건물의 외부는 벽돌을 사용하여 지어졌다. B 너싱홈의 2층 건물 또한 벽돌을 사용하여 지어졌다. 두 너싱홈 모두 일반주택의 외관이 아니라 학교 기숙사나 상업건물과 같은 외관을 가지고 있었다<Figure 1>.

너싱홈 두 곳 모두 실외 정원을 가지고 있었으나, A 너싱홈은 거주자들의 안전상의 이유로 직원들의 허가 없이 함부로 건물 밖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넓은 정원을 보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거주자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정원 같은 거 쓸 데 없어요. 여기[너싱홈]서 밖에 못 나가게 해요. [노인들이] 쓰러진다고.” (거주자 1, A 너싱홈)

“여기[너싱홈]선 못 나가. 건강하고 [직원들에게] 허락받은 사람들만 나갈 수 있지.” (거주자 4, A 너싱홈)

반면 B 너싱홈은 건물 안쪽에 울타리를 가진 안전한 실외 정원이 있었으며 거주자들은 이곳을 자유롭게 이용



a) Dormitory appearance of “A” nursing home building exterior b) Commercial building appearance of “B” nursing home building exterior

Figure 1. Exterior of Nursing Home Building

할 수 있었다. 이곳에는 작은 연못이 있고 연못 안에 금붕어와 오리도 있었다. 또한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와 꽃, 야채, 나무 등이 자라고 있어서 한인 거주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너싱홈 시설이었다:

“무, 배추 같은 한국채소를 마당에 심어 놓고 자라면 씻어서 먹어... 여름에는 마당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벤치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마당에 연못도 있는데 오리랑 금붕어도 있어. 계절마다 꽃이랑 나무도 자라고.” (거주자 17, B 너싱홈)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서 새들에게 빵부스러기 주는 게 내 낙이야.” (거주자 19, B 너싱홈)

“마당에 새랑 꽃 보는 게 좋아. 그래서 종종 연못에 나가지...” (거주자 20, B 너싱홈)

2) 건물 실내공간

두 너싱홈 실내공간은 페인트칠한 벽, 형광등, 긴 복도와 그 복도를 따라 배치된 거주자 침실, 병원에서 나는 냄새(소독 냄새와 소변 냄새), 간호사의 편이를 위해 복도와 복도 사이에 위치한 높은 높이의 간호사실은 이들 너싱홈이 가정이 아닌 마치 작은 규모의 병원 같은 느낌을 갖게 했다.

흥미로운 점은 너싱홈의 물리적 주거환경이 가정적(home-like)이거나 병원이나 의료시설 같은 것과 상관없이 대부분 한인 거주자들은 너싱홈을 자신의 진정한 집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일부 거주자들은 의료시설이나 노인을 위한 의료시설로 생각하였다:

“여기는 롱텀케어(long-term care)라 해서 메디컬케어를 받으면서 생활하는 곳이지. 그냥 와서 죽는 날 기다리는 데가 아니야. 양로원이 또 하나 있다고. 거기랑 달라. 여기는 오리지널 메디컬 센터야.” (거주자 5, A 너싱홈)

“여기는 개인이 사는 집이 아니라 우리같이 아픈 노인들이 오는 곳이야. 치료 받으려고.” (거주자 13, B 너싱홈)

이와같이 현재 거주하는 너싱홈을 의료시설로 여김으로써 자녀들에게 너싱홈에 버렸다는 생각과 다른 사람들로 부터 자녀들이 늙은 부모를 너싱홈에 보냈다는 수치심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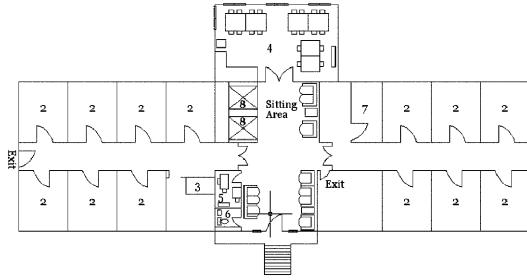


Figure 2. "A" Nursing Home First-floor Plan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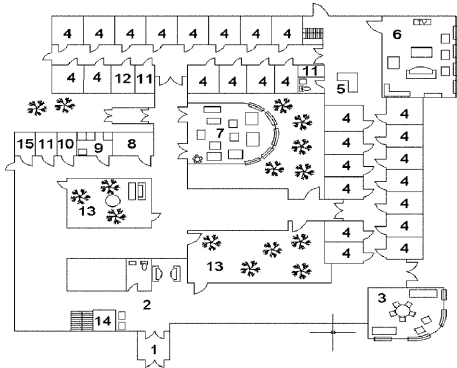


Figure 3. "B" Nursing Home First-floor Plan⁴⁾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너싱홈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는 듯 했다.

재미한인 노인 거주자를 위한 독립된 건물이나 원의 물리적 주거환경은 한인 거주자의 문화와 관련 없이 디자인 되었으며 다른 민족 거주자들이 사는 곳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동양 그림이나 사진이 벽에 걸려 있다는 것이 유일한 차이였다. 그리고 너싱홈 시설의 명패는 대부분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만 쓰여 졌다. 예를 들어, 침실 문 옆에 붙여진 이름표나 사무실, 식당, 화장실, 원 등의 표지판이 영어로만 쓰여 있었다. 실제로 이곳에 한인 거주자들은 각 침실 앞에 거주자들의 이름이 영어로 적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부분은 서로서로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A 너싱홈 코디네이터는 너싱홈 시설들이 영어로만 쓰여진 이유는 미국 너싱홈 직원들이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대부분 한인 거주자가 영어를 읽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들의 언어적 필요성(linguistic need)에 부합된 것이 아니고 한글을 읽지 못하는 직원들을 배려한 것이라 하겠다.

(1) 공공공간

A 너싱홈의 경우 한인 거주자가 사용하는 독립된 건물에는 식사, 레크리에이션, 예배, 텔레비전 시청, 사교장소 등 다용도로 사용되는 식당 외에는 공공공간이 거의 없

었다. “너싱홈에서 거주자 방외에 자주 가시는 곳은 어디 입니까?”라는 질문에 A 너싱홈 한인 거주자 대부분은 갈만한 곳이 없다고 답했다:

“갈 곳이 없지... 성경 공부할 때 식당 거기나 가지. 거기도 그[성경공부하는]시간 밖에 안 나가고.” (거주자 5, A 너싱홈)

“가는데가 없어요. 주로 방에 있어요.” (거주자 8, A 너싱홈)

반면 B 너싱홈은 A 너싱홈보다 아이스크림 가게, 미용실, 도서관, 게임 룸, 식당, 세탁실등과 같은 다양한 공공시설을 가지고 있었으나, 관찰 결과 실질적으로 A, B 너싱홈 거주자들은 TV를 보거나 잠을 자는 등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방에서 보냈으며 일부는 복도에 놓인 소파에 말없이 앉아 있거나 식당에서 텔레비전을 보았다.

(2) 준사적 및 사적공간

A 너싱홈의 거주자 방은 1인실, 2인실, 3인실이 있었지만 1인실과 2인실 수는 매우 적었다. 2인실은 주로 부부 거주자들에게 주어졌고 거주자 대부분은 3인실을 사용하였다(Figure 4). B 너싱홈 거주자 방은 2인실과 4인실이 있었으며 1인실은 없었다. B 너싱홈 거주자 대부분은 2인실을 사용하였다(Figure 5). 거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중환자들은 4인실에 배정 되었다. 유형별 거주자 방은 화장실 유무 외에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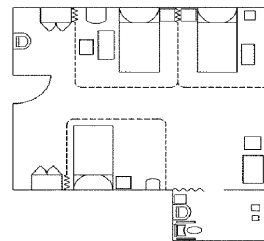


Figure 4. Three-bed Room at "A" Nursing H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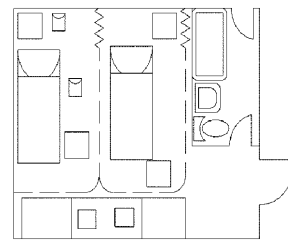


Figure 5. Two-bed Room at "B" Nursing Home

스스로 거동 할 수 있고 정신이 온전한 거주자들은 스스로 거동하지 못하는 거주자나 치매환자와 같은 방에 배정되었다. 이러한 방 배정은 너싱홈 거주자를 배려한 것이 아니라 직원의 케어의 편의에 따른 것으로 보였다. 또한 이것은 건강한 거주자들로 하여금 불편을 느끼게 했으며 룸메이트와 잦은 다툼의 원인이 되었다:

3) 범례: 1-현관, 2-거주자 방, 3-간호사실, 4-식당(다용도실), 5-사무실, 6-공공화장실, 7-목욕실, 8-승강기

4) 범례: 1-현관, 2-로비, 3-아이스크림 가게, 4-거주자 방, 5-간호사실, 6-게임(TV)룸, 7-식당(다용도실), 8-부엌, 9-세탁실, 10-물리치료실, 11-창고, 12-목욕실, 13-정원, 14-승강기, 15-미용실

“여기[방]에 중풍 걸린 사람이 있다고. 말도 못하고 매일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래서 냄새 때문에 추워도 우리는 매일 문 열어 놓고 살아... 방에 들어오면 미친 할머니[룸메이트] 때문에 [침대 주변]커튼 치고 살아.” (거주자 11, A 너싱홈)

“다른 할머니가 와도 미친 이[룸메이트] 때문에 내방 말고 딴 곳으로 나가. [룸메이트가] 정말 싫어. 미쳤어. 자리 방에 들어오면 너무 싫어.” (거주자 14, B 너싱홈)

“[스스로] 거동 못하는 장애자랑 거동할 수 있는 사람이랑 한 방에 같이 살아. 장애자가 넘어지면 다른 이[거동 가능한 룸메이트]가 벨 눌러서 간호사한테 알려주고 하는데 어떤 이들은 서로 이해를 못하고 싸워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살아.” (거주자 17, B 너싱홈)

화장실의 경우, A 너싱홈의 일부 2인실과 모든 3인실은 침실 내에 화장실이 있었으며 모든 1인실과 일부 2인실에는 화장실이 없었다. B 너싱홈의 경우, 2인실 내에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인접한 방의 거주자 2인과 함께 사용하도록 되어있어서 A 너싱홈 거주자보다 화장실 사용이 더 편리하였다. 목욕실의 경우 공동으로 사용했으며 거주자는 각각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A 너싱홈과 B 너싱홈 간에 실내공간 차이는 거의 없었다. 이는 모든 너싱홈 시설은 정부가 정한 너싱홈 설계 기준에 맞춰 지어졌으며 거주자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설계 기준에는 거주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건축적 배려는 거의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너싱홈 거주자는 자신의 침실조차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확보가 매우 어려웠다. 거주자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각 침대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커튼을 치는 것이 전부였다.

IV. 결론 및 제언

미국 내 재미한인 노인을 위한 너싱홈 두 곳의 물리적 주거환경에 관한 사례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했으며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재미한인 노인을 위한 너싱홈 환경을 디자인할 시 고려사항도 함께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이와 관련한 연구에 관한 제언도 포함되었다.

첫째, 재미한인 노인 거주자를 위한 독립된 건물이나 wings의 물리적 주거환경은 동양그림이나 사진이 벽에 걸려 있다는 것 외에 다른 민족 거주자들이 사는 곳과 차이가 없었으며 한인 거주자의 문화와 관련 없이 디자인 되었다. 이 너싱홈들은 한국 음식이나 한국 오락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한인직원을 고용하는 등 관리적 환경 측면에서 한인 거주자의 문화를 고려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물리적 주거환경 측면에서는 이들 문화를 고려한 배려는 없었다. 이것은 물리적 주거환경 측면에서는 한인 거주자와

다른 민족 거주자 사이에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거나 중요시 여기지 않은 결과로 여겨진다. 그러나 장기 케어시설의 물리적, 관리적, 사회적 환경 모두 시설 거주자의 삶과 케어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거주자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너싱홈 물리적 주거환경 제공은 그들의 삶과 케어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또한 소홀히 다루어져서도 안 될 것이다.

둘째, 재미한인 노인 거주자 대부분은 영어를 전혀 말하거나 이해하지 못했으나, 너싱홈 시설 대부분은 영어로만 쓰여 있었다. 따라서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너싱홈 시설의 표지판이나 게시판 등에는 영어와 함께 거주자의 모국의 문자(재미한인 노인을 위한 너싱홈인 경우에는 한글) 표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두 너싱홈 모두 재미한인이 많이 사는 한인 지역 공동체 내 혹은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그곳의 여러 한인 단체들과 연계되어 일부 프로그램(종교활동, 오락, 한국음식제공 등)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는 한인 너싱홈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너싱홈에서 외부세계와 단절되어 고립감을 종종 느끼는 노인 거주자들에게 외부세계와의 교류의 기회가 되고 타국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자주 외로움, 소외감, 상실감 등을 느끼는 재미한인 노인들에게 정신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인 단체와의 연계가 노인 거주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너싱홈이 한인 지역공동체 내나 근처에 위치함은 한인 단체와의 연계를 용이하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너싱홈의 물리적 주거환경은 가정적이지 않고 병원이나 의료시설과 같았다. 그러나 한인 거주자 대부분은 물리적 주거환경이 어떠한가와 관계없이 너싱홈을 자신들의 진정한 집으로 여기지 않았으며 일부는 병을 치료하는 의료시설로 여겼다. 너싱홈을 의료시설로 여김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자녀들에게 너싱홈에 버려졌다는 생각과 너싱홈에 사는 것에 대한 수치심 등)을 줄이고 너싱홈 적응에 기여하였다. 이는 너싱홈의 가정적인 물리적 주거환경(home-like physical environment) 제공이 다른 미국 너싱홈 거주자들과 마찬가지로 한인 거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제 집같이 여기는 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인노인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서 가족과 너싱홈 직원들의 보다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비록 본 연구에서는 너싱홈 거주자들이 실내 공공공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을 너싱홈 건물 안에서 지내는 거주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실내 공공공간 제공은 너싱홈 생활을 덜 지루하게 느끼게 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울타리를 가진 실외정원은 한인 거주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공공간이었다. 따라서 안전상의 이유로 관리적 측면에서 거주자의 정원 이용을 제

한을 하기 보다는 거주자의 삶의 질이나 케어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는 정원 조성이 필요하다.

여섯째,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다른 거주자보다 건강한 거주자는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나 치매환자와 한 방에 배치됨으로써 이들 사이에 충돌을 야기했으며 질적 삶에 방해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너싱홈 케어 제공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거주자 방 배정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방 배정은 너싱홈 직원의 케어의 편의를 배려한 것으로 보여지며 거주자의 뜻과 상관없이 이러한 방배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일곱째, 너싱홈은 정부가 정한 시설 설계기준에 맞추어 안전하게 지어졌으나, 거주자의 프라이버시 확보에 대한 건축적 배려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너싱홈의 물리적 주거환경은 거주자의 안전성 뿐 아니라 거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프라이버시 확보에 대한 건축적 배려가 요구 된다.

본 연구는 미국 내 한인들을 위한 너싱홈의 사례연구로 본 연구결과를 그대로 한국 요양원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향후 우리나라 요양원시설을 디자인하거나 계획할 시 본 연구결과를 참고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너싱홈 물리적 주거환경에 관한 연구에 있어 너싱홈 거주자 가족들의 의견 또한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연구에 있어 너싱홈 거주자들의 가족을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또한 좀 더 많은 너싱홈 직원들도 이러한 연구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REFERENCES

1. Clark, C. L. (2006). *Cultural change in nursing hom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iami University, U.S.A.
2. Day, K., & Cohen, U. (2000). The role of culture in designing environments for people with dementia: A study of Russian Jewish immigrants. *Environment and Behavior*, 32(3), 361-399.
3. Jang, Y., Kim, G., Chiriboga, D. A., & Cho, S. (2008). Willingness to use a nursing home: A study of Korean American elders.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27(1), 110-117.
4. Johnson, C. L., & Grant, L. A. (1985). *The elderly in American societ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5. Kim, K. S. (1997). Long-term care for the Korean American elderly: An exploration for a better way of services. *Journal of Long-Term Home Health Care*, 16(2), 35-38.
6. Mui, A. C., & Shibusawa, T. (2008). *Asian American in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7.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2002). *The national nursing home survey: 1999 summary*. Vital and health statistics. 13(152). Hyattsville, MD: CDC/NCH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8.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2009). *The national nursing home survey: 2004 overview*. Vital and health statistics. 13(167). Hyattsville, MD: CDC/NCH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9. Tanjasiri, S. P., Wallace, S. P., & Shibata K. (1995). Picture Imperfect: Hidden problems among Asian Pacific Islander elderly. *The Gerontologist*, 35(6), 753-60.
10. U.S. Census Bureau. (1973). 1970 Census of population.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tion, part 1, section 2: U.S. summary (PC-1-B1).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1. U.S. Census Bureau. (1993). *Census of population, 1980. General population characteristics: United States summar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2. U.S. Census Bureau. (2000). Census 2000 Summary file 2(SF 2).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Commerce.
13.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on Aging. (2009). *A profile of older Americans: 2009*. Washington, DC: Author.On-line. Available: http://www.aoa.gov/AoAroot/Aging_Statistics/Profile/2009/docs/2009profile_508.pdf
14. U.S. Department of Commerce. (2010). *Facts for features Asian/Pacific American Heritage Month: May 2010*.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5. Yoo, S. H., & Sung, K. (1997). Elderly Koreans' tendency to live independently from their adult children: Adaptation to cultural differences in America.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12, 225-244.
16. Yu, E. S., Kim, K., Liu, W. T., & Wong, S. (1993). Functional abilities of Chinese and Korean elders in congregate housing. In C. M. Barresi & D. E. Stull (Eds.), *Ethnic elderly and long-term care* (pp. 87-110). New York: Springer.

접수일(2011. 6. 10)

수정일(1차: 2011. 8. 19)

게재확정일(2011. 9. 15)